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레위기 영맥풀이

레위를 통해 거룩을 배운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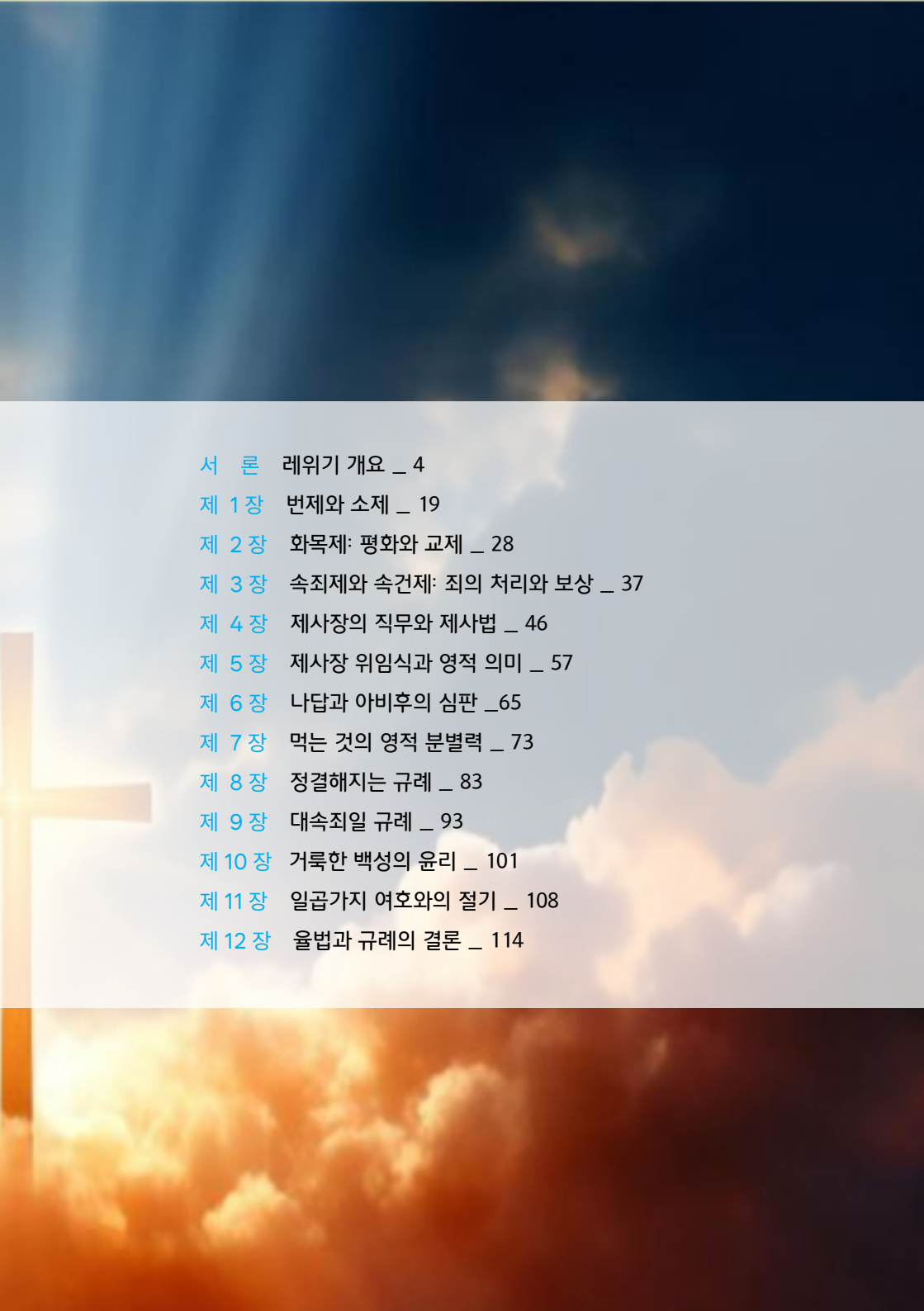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ONTENTS





서 론	레위기 개요 _ 4
제 1 장	번제와 소제 _ 19
제 2 장	화목제: 평화와 교제 _ 28
제 3 장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처리와 보상 _ 37
제 4 장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법 _ 46
제 5 장	제사장 위임식과 영적 의미 _ 57
제 6 장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_ 65
제 7 장	먹는 것의 영적 분별력 _ 73
제 8 장	정결해지는 규례 _ 83
제 9 장	대속죄일 규례 _ 93
제 10 장	거룩한 백성의 윤리 _ 101
제 11 장	일곱가지 여호와의 절기 _ 108
제 12 장	율법과 규례의 결론 _ 114



서론

/

레위기 개요

서론 레위기 개요

도입내용

레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후(출애굽기 종결),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그가 부르셨다)는 뜻처럼,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부르시며 제사를 통한 죄 해결과 정결 규례를 통한 거룩한 삶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1. 제목 및 저자와 기록 배경

가. 제목과 책의 시작

(1) 히브리 제목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와이크라>의 의미와 연속성

a.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통의 시작

-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은 '와이크라(וַיִּקְרָא)'이

며, 이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이 책의 첫 단어에서 유래합니다(레 1:1).

- 출애굽기의 끝에서 성막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백성에게 먼저 교제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거룩한 만남과 언약적 교제의 단계로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b. 거룩함으로의 소명

- '부르심'은 이후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룩함으로의 소명'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레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헬라어 제목 '레위인에 관한 것'의 의미

a.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 강조

- 레위기의 헬라어(70인역) 제목은 '레우이티콘 (ΛΕΥΙΤΙΚΟΝ)'이며,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 제목은 책의 내용이 주로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다루며, 거룩한 예배와 중보 사역에 대한 규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

b. 레위 지파의 구별된 사명

-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 이 책은 그들이 죄인인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나. 기록 목적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1) 기록 배경과 성막 완공 이후의 필요성

a. 거룩한 임재와 인간의 부정함

- 레위기는 성막 완공(출애굽기 40장) 직후, 이스라엘이 시나산을 떠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지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죄와 부정함의 처리 방법 제시

- 기록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죄와 부정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 제사 제도와 정결 규례는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2)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기초와 소명

a. 제사장 나라의 실현 지침

-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전입니다.
- 율법의 준수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와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었습니다.

b. 거룩함의 최고 명령

- 레위기 전체의 규례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 핵심 주제와 구원의 본질

가. 핵심 주제: 거룩(Holiness)과 피의 대속

(1) 하나님의 거룩(Holiness)과 인간의 부정

a. 거룩의 본질과 분리

- 하나님의 거룩은 곧 그분이 완전히 구별되고 흠이 없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와 부정함은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 레위기는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까지 부정함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삶 전체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b. 거룩의 전파 원리

-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는 반면,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을 통해서만 죄와 부정함이 제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대속의 결정체: 피의 언약

a. 피를 통한 생명의 속죄

-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7:11)
- 이 피의 대속 원리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생명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며, 모든 구속의 기초가 됩니다.

b. 새 언약의 예표

- 대속죄일에 드러진 염소의 피와 속죄소에 뿌려진 피의 예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영원한 속죄임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나. 구속사의 청사진: 예배의 설계도

(1) 하나님 임재의 중심: 제사 제도와 예배의 공간

a. 구속의 순서를 담은 5대 제사

-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헌신과 교제)와 속죄제, 속건제 (속죄)로 나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복음의 핵심 순서를 담고 있습니다.

b. 참된 중보자: 제사장

-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거룩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이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예표합니다.

(2) 구속사의 최종 목표: 성화의 완성

a. 임재의 지속성: 성화의 원리

- 레위기는 성막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를 통해 정결을 얻고, 이 정결이 일상적인 윤리적 삶(성결 법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 성막에 임한 임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b. 신약에서의 완성

- 이 거룩의 요구는 신약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고전 3:16).
-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최종 목표인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재정의됩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 구조와 내용의 흐름 (거룩과 윤리의 연속성)

가. 구조적 원리: 제사(Sacrifice)와 삶

(Sanctification)의 이중 구조

(1) 제사(레 1장~10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a. 죄 해결의 기초와 중보직 확립

-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5대 제사의 규례를 상세히 다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통해 거룩한 중보 직분을 세웁니다.
-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레 10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거룩한 방식을 어길 때 임하는 엄중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b. 구속사의 핵심 교훈

-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의 필요성을 가르치며, 인간의 죄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삶의 규례(레 11장~27장): 거룩을 지키는 길

a. 정결과 윤리의 수여

- 일상 속에서의 정결 규례 (음식, 질병)와 사회 속에서의 성결 규례 (윤리, 절기, 안식년, 희년)를 받음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대속죄일(레 16장)은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죄의 최종적인 제거일이었습니다.

b. 성화의 핵심 교훈

- 이 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성화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나. 내용적 구분: 피를 통한 정결과 순종을 통한 생명

(1) 정결 드라마: 부정을 제거하는 방식 (레 1장~16장)

a. 피의 능력을 통한 정결

- 레위기의 전반부는 피 흘림과 물로 씻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죄와 부정함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예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정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b. 희생과 중보의 역할

- 제사장과 제물을 통한 중보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는 궁극적인 중보자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2) 생명의 드라마: 거룩한 삶의 유지 (레 17장~27장)

a. 삶의 거룩을 통한 언약 유지

- 레위기의 후반부는 피 흘림이 아닌, 율법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하는 법을 다룹니다.
-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레 25:18)

[레 25: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b. 영광의 완성

- 율법에 대한 순종이 풍성한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옴을 명확히 선포함으로써(레 26장), 이스라엘에게 언약 관계의 책임과 엄중함을 가르칩니다.

4. 레위기의 영적인 의미

가. 구원론의 최종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속죄

(1)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와 모형

a. 대제사장과 제물의 일치

-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8:5).
- 그리스도는 흠 없는 제물인 동시에 영원한 대 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폐지하셨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b. 피의 언약의 최종 완성

- 5대 제사와 대속죄일의 피는 모두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지만 (속죄),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대속) 능력이 있습니다.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영원한 성화의 요구

a. 제사장 직분의 확장

- 레위기의 제사장은 특정한 가문에게만 한정되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벤전 2:9) 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 성도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아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롬 12:1)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b. 거룩한 삶의 현실화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삶을 요구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오늘날 성도들이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윤리를 실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나. 교회론적 및 종말론적 의미

(1) 교회 공동체의 정결과 순결

a. 공동체의 책임

- 레위기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이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b. 거룩의 확립

-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

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 속에 사는 교회가 순결함을 지켜야 할 사명을 예표합니다.

(2) 안식과 희년: 종말론적 소망의 예표

a. 완전한 해방의 약속

- 안식년 (땅의 쉼)과 희년 (모든 빚의 탕감, 토지의 반환, 노예의 해방) 규례는 (레 25장)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완벽하게 실현될 때 일어날 완전한 회복과 해방을 상징합니다.
- 이는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자유의 종말론적 소망을 예표합니다.

b. 궁극적인 임재의 완성

-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1 장

/

번제와 소제

제 1 장 번제와 소제

도입내용

(레위기 1-2장)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함의 법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제사라는 통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중 번제와 소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소제는 흠 없는 인격과 성령의 충만한 봉사를 상징합니다. 이 두 제사를 통해 우리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삶을 드릴 수 있는지 배웁니다. 이 규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완전한 순종의 삶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번제: 전적인 헌신과 대속의 기본 원리

가. 번제의 방법과 의미의 확장된 이해

(1) 제물의 종류와 안수의 철저한 의미

-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olah)'라고 불리며, 그 뜻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제물이 완전히 불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 드리는 자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은혜를 제공합니다.

- 제물은 소, 양, 염소, 또는 새(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제물은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참여하여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영적인 언약 행위였습니다. 안수를 통해 죄의 오염이 흠 없는 제물에게 옮겨지고, 제물은 드리는 자를 위해 속죄하는 효력을 얻게 됩니다.
- (레위기 1:4)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11:3]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 제물을 전부 태워 드림과 전적인 헌신의 원리

-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까지 깨끗하게 씻어 태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9, 13).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며, 숨겨진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되어 드러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제물이 연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제사자의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통해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죽고,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짐으로써 다시 산다는 속죄와 헌신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나. 번제의 심화 묵상: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우리의 삶의 예배

(1) 흠 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속죄

-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흠 없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만이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드러질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마 26:39] 조금 나아가 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생명을 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으며, 그 순종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완전한 번제였습니다.

(2) 상번제와 성도의 끊임없는 헌신

- 번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려진 상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을 완전한 번제로 드리신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헌신에 연합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 (로마서 12:1)로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다는 자발적인 결단이 바로 오늘날의 번제 정신입니다.
- 삶의 적용: 우리는 이 번제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최소 30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전적인 헌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소제: 고운 가루와 기름의 상징

가. 소제의 재료와 영적 의미

(1)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의 깊은 상징성

-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주로 고운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밀알이 맷돌에 빻아지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흠 없고 완전한 인격을 상징하며, 고난을 통해 온전해 지신 그분의 삶을 보여줍니다.
- 여기에 붓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상징하며,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우리의 봉사 역시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레위기 2:1)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 누룩과 꿀의 금지와 구별됨의 영적 경고

-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룩은 빠르게 부패하고 팽창하는 성질 때문에 죄와 부패, 위선을 상징하므로 거룩한 제사

에서는 철저히 제외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8).

- 꿀은 자연적인 단맛으로 세상적인 쾌락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상징하며, 순수한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달콤함이나 부패가 없는, 말씀에 기초한 순수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봉사가 죄와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전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나. 소제의 심화 묵상: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과 봉사

(1) 삶으로 드리는 봉사와 그리스도의 인격

- 소제는 곡식, 즉 삶의 수확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임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흠 없는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가 됩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33년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사랑,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고운 가루'였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2) 영적 결론과 삶의 결단

- 소제를 통해 나는 나의 일상적인 삶과 봉사가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인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져야 함을 배웁니다. 번제는 대속의 기초를, 소제는 거룩한 삶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과 삶의 거룩이라는 양면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 우리는 내가 맡은 작은 일이나 봉사를 할 때, 누룩(나의 위선이나 자랑)과 꿀(세상적인 욕심)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기름)과 진 싯함(고운 가루)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장

/

화목제: 평화와 교제

제 2 장 화목제: 평화와 교제

도입내용

(레위기 3장) 레위기의 제사 중 화목제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집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뎀'이라 불리며, 이는 '샬롬(평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상태에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한 교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자가 함께 나누어 먹는 독특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화목제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와 의미의 확장된 이해

(1) 감사, 서원, 낙헌의 화목제와 평화의 기초

-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를 속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

사하고(감사제), 이룬 축복에 대해 서원하고(서원제), 또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낙헌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 참된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 평화는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2) 제물 나누기: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와 충만함의 신학적 의미

-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과 콩팥 등 가장 좋은 부분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정해진 기간(감사제는 당일, 서원/낙헌제는 이튿날까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레위기 7:15).
- 화목제의 이름 '셀라뮴'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서 '충만함(Completeness)'과 '온전함(Wholeness)'을 의미합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기름), 제사장(분깃), 제사자(나머지 고기) 삼자 간의 교제를 상징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나. 화목의 영원한 완성: 그리스도의 피와 실천

(1)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원한 화목

- 화목제의 영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한 단 한 번의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 분이 허락하신 축복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살롬이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2) 믿는 자들의 화목의 실천과 교훈

- 화목제를 통해 깨닫는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곧 사람과의 평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 우리는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을 실천함으

로써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2. 제물의 규례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 화목 제물의 선택과 조건

(1)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

-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드릴 수 있었지만,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3:1).
- 흠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 제사가 아무리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완전하고 거룩한 희생만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규례와 생명 존엄의 원리

- 화목제를 드린 후에도 모든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3:17).
-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상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와 영광(기름진 부분)을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교훈합니다.

-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나. 화목 제사자가 기억할 영적 교훈

(1)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과 유효 기간

- 화목제는 감사의 태도가 제사 전체의 중심을 이루게 합니다. 이 제사는 미루거나 묵히지 않고 즉시 누려야 하며,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은 반드시 드리는 그 날에 다 먹어야 했고, 서원이나 낙헌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삼 일째는 불살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7:15-18). 이는 제사가 가진 기쁨과 감사의 신선함을 강조합니다.

(2) 영적 결론

- 화목제를 통해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사를 드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참된 신앙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
니다.

- 화목제에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의
하루 중 가장 활력 있고 좋은 시간(기름진 시
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로 드리
겠습니다.

3. 화목제 제물의 처리 방식: 요제와 거제의 의미

가. 요제 (搖祭, Wave Offering): 헌신된 마음

(1) 제물을 흔들며 드리는 행위

-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 부위
를 가져와 제사장의 손 위에 얹고, 제사장은
이를 앞뒤로 흔들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레
위기 7:30). 이 행위가 바로 요제입니다.
- 가슴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상징합니다. 요제
는 제사자가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섬기겠다는 사랑과 경외심의 표
현이었습니다.

(2) 요제의 영적 의미: 돌려주시는 은혜

-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이 흔들

[레 7:30] 여호와와 화
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
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
에 흔들며 요제를 삼고

후, 그 가슴 부위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후, 그 복을 다시 제사장(중보자)을 통해 백성에게 돌려주신다는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 거제 (擧祭, Heave Offering): 전적인 충성

(1) 제물을 들어 올려 드리는 행위

- 화목제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따로 떼어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방식을 거제라고 합니다 (레위기 7:32).
- 뒷다리는 동물의 가장 강력한 힘이 모여 있는 부분으로, 사람의 능력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거제는 제사자가 자신의 온 힘과 충성,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2) 거제의 영적 의미: 봉사에 대한 보상

- 거제로 드려진 뒷다리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후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에 대한 선물과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 장

/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처리와 보상

제 3 장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처리와 보상

도입내용

(레위기 4-5장)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번제와 소제가 헌신과 봉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깨닫게 됩니다.

1. 속죄제: 부지 중 지은 죄의 사함

가. 속죄제의 목적과 피의 사용

(1) 속죄제의 목적: 부지 중 지은 죄의 사함

- (레위기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탯(Chatta't)'이며, 이

는 '과녁을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주로 부지중에(몰라서 또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드렸습니다.

- 죄는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2) 제물과 신분에 따른 피의 사용

-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이 달랐으며, 피의 처리 방식도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제물(수송아지)을 드리고, 그 피를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 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죄였음을 상징합니다. 속죄제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나. 속죄제의 심화 묵상: 죄의 전가와 대속의 원리

(1) 죄의 전가와 연합의 원리

- 속죄제에서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자신의 죄가 그 흠 없는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죄를 지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대속의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2) 속죄제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태운 이유와 영적 의미

-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 제물 중 피는 성소 안에서 처리했지만, 고기는 반드시 진영 바깥,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4:21). 이 고기는 죄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즉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11-12).
- 속죄제의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버

[레 4: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려짐)까지 감당하셨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상처 준 말이나 행동)를 돌아보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그 철저한 용서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2. 속건제: 구체적인 손해 배상과 회복

가. 속건제의 목적: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

(1) 속건제의 의미와 적용 범위

-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Asham)'이며, 이는 '배상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성물(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해를 끼쳤거나,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 속죄제가 죄의 '용서'에 초점을 맞춘다면,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한 '손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속건제는 죄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와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2) 회개와 구체적인 책임 이행

- (레위기 5: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

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
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 속건제는 말과 행동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감이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손해 배상과 책임 이행을 수반해야 합니다.
- 5분의 1 가산 규례의 엄중함은 단순히 원금 회복을 넘어, 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의 정신적, 시간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정의로운 원칙입니다. 만약 나의 실수나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또는 시간적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속건제의 심화 묵상: 온전한 회복과 그리스도의 보상

(1) 속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 구약의 속건제 제사는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했지만,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배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손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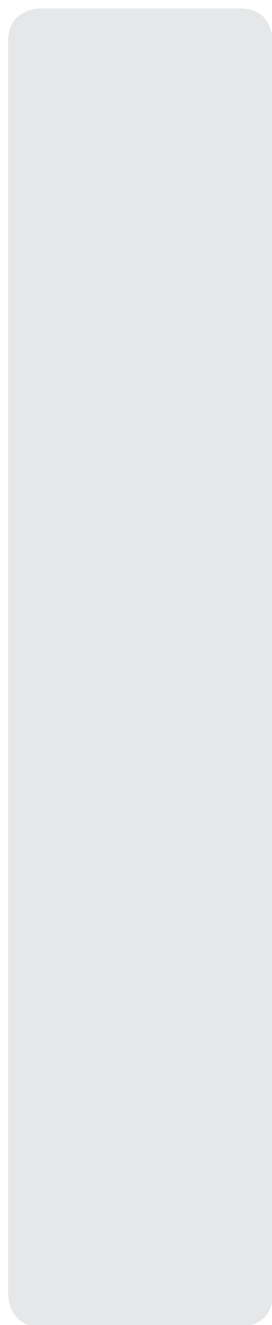
- 이사야 53장 10절은 메시아를 '속건제물(아삼)'로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셨음을 선언합니다.
- 예수님은 5분의 1을 더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까지 온전히 돌려받았습니다.

[사 53: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2) 영적 결론과 삶의 실천

- 속죄제를 통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한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나는 죄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와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책임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내가 용서와 회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 속죄제를 통해 얻은 용서와 속죄제의 정직한 보상 정신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제사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의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

니다.







4 장

/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법

제 4 장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법

도입내용

(레위기 6-7장)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다섯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6장과 7장은 이 제사들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세부적인 지침과 제물의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제사의 영적 효력이 제사장의 지속적인 거룩함과 성실성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는 경건과 순종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1. 제사장의 직무와 영적 책임

가. 번제단 불 유지의 영적 의미

- (1) 꺼지지 않는 불의 상징 (레위기 6:13)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 제사장은 번제단 위의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 때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24). 이 불은 성막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모든 제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불을 보존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 제사장이 이 불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했듯이, 성도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삶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동력이 됩니다.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2) 재 처리와 거룩함 유지

- 제사장은 매일 아침 번제단 위의 재를 치워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다 버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6:10-11). 재를 치우는 것은 제사장의 첫 번째 일과였으며, 이 일을 수행할 때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 이 행위는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며, 제사를 통해 얻은 정결함을 공동체 밖으로 분리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중요한

[레 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레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절차였습니다. 재는 죄의 흔적이며, 이것을 진영 밖에 버리는 것은 죄의 결과가 성막과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죄의 찌꺼기와 옛 습관(재)을 처리하고 정결하게 해야 영적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나. 제사법의 심화 묵상: 제사장 분깃과 거룩함의 전파

(1) 제사장 분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거룩함

-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 가족의 몫(분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제 중 남은 부분이나 화목제와 속건제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7:9-10).
- 이 분깃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게 다루어졌으며,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깃은 성소의 뜰이나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 제사장 분깃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원리를 보여주

[레 7:9]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레 7:10]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며, 제사장의 생계가 백성들이 드린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영적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2) 거룩함의 전파와 성도의 책임

-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듯이 (레위기 6:13)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 이 최종 규례들은 제사의 영적 효력이 제사장의 지속적인 거룩함과 성실성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의 불(열정,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불로 태워질 때, 그 거룩함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불)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경외함으로 다뤄야 합니다.

[레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2. 제물의 종류별 추가 지침과 영적 적용

가.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추가 규례

(1) 소제와 거룩함의 전파

- 소제 중 불에 태워지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었는데, 소제를 드린 장소나 소제에 사용된 기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6:16-18). 소제의 고운 가루가 거룩한 불에 드러졌기 때문입니다.
- (레위기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 이 말씀은 거룩함이 전파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제사에 사용된 기구가 거룩해지듯이, 우리가 거룩한 주님께 헌신하여 봉사할 때,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영역도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공간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야 합니다.

(2) 화목제 제물의 유효 기간

-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은 반드시 드리는 그 날에 다 먹어야 했고, 서원이나 낙헌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삼 일째는 불살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7:15-18).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금 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은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이는 제물에 부패가 스미기 전에 다 소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는 제사가 가진 기쁨과 감사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죄가 섞인 누룩처럼 남겨진 제물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 거룩함의 시간적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화목)는 미루거나 묵히지 않고 즉시 누려야 하며, 신앙의 기쁨과 감사는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
는 죄를 당하리라

나. 피와 기름 금지 규례의 재확인과 영적 결론

(1) 피와 기름 금지의 목적

-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말라” (레위기 7:26) 이 규례는 3장에서 이미 다루었으나 7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규례는 반복하여 강조됩니다.
- 피는 생명이며,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 또한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므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했습니다. 기름은 향

상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2) 영적 결론

- 레위기 6-7장의 제사법 최종 규례는 제사의 완벽한 집행과 제사장들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모든 규례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세상의 헛된 욕심(기름)이나 생명 경시(피)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가 거룩함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제물을 드리는 4가지 방식과 영적 의미

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제사 집행의 실제

(1) 제사의 방식을 규정한 이유

-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종류(Type)를 구분한 것이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물을 실제로 처리하는 방식(Method)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방식들은

제물의 처리와 제사장의 분깃을 명확히 하여, 거룩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은 제물을 일단 하나님께 드린 후 다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2) 제물을 드리는 4가지 방식

- 화제 (火祭): 불에 태워 연기로 드리는 방식. 모든 제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 요제 (搖祭): 제물을 앞뒤로 흔들며 드리는 방식. 주로 화목제의 가슴을 사용하며, 마음 중심의 헌신과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 거제 (擧祭): 제물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 주로 화목제의 뒷다리를 사용하며, 힘과 능력을 다한 충성과 봉사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 전제 (奠祭):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 제물을 부어 드리는 방식. 번제와 함께 드려지며, 희생과 헌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리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나. 제사 방식의 신약적 완성

(1) 율법적 행위에서 영적인 예배로의 전환

- 구약의 모든 제사 방식은 제물을 직접 흔들고, 들고, 태우는 육체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이 모든 율법적 요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 우리의 예배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는 말씀처럼, 영적이며 삶 전체를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영적 결론: 삶으로 드리는 헌신

- 요제와 거제가 마음(가슴)과 힘(뒷다리)을 상장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다한 감사와 힘을 다한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 제사 방식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태도와 방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함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5 장

/

제사장 위임식과 영적 의미

제 5 장 제사장 위임식과 영적 의미

도입내용

(레위기 8-9장)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 위해 7일 동안 거쳐야 했던 위임식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씻음, 옷 입힘, 기름 부음, 그리고 피를 바르는 정교한 예식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고 성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명된 아론은 마침내 9장에서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1.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 절차

가. 위임식의 준비와 성별

(1) 씻음, 옷 입힘, 관유 부음

-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겼습니다 (레위기 8:6). 이 씻음은 죄로부터의 깨끗함과 정결을 상징하며, 거룩한 직분을 맡기 위한 첫

[레 8:6]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단계였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다음으로 모세는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복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었으며, 직무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옷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역할과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 모세는 관유(거룩한 기름)를 가져다가 성막과 모든 기구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레위기 8:12). 관유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직을 상징하며, 기름 부음으로써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레 8:12]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2) 피를 통한 거룩한 직분의 확립

- 위임식에는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물이라는 세 종류의 제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위임식 숫양의 피를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레위기 8:23-24).
- 귀, 손, 발에 피를 바른 행위는 제사장이 하나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님의 말씀(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사역(손)을 행하며, 거룩한 길(발)을 걷겠다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이제 피의 언약 아래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위임식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나. 제사장 위임식의 영적 의미 심화

(1) 거룩함의 전이와 구별의 원리

- 제사장 위임식은 거룩함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신적인 절차를 보여줍니다. 아론은 본래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씻음, 옷 입힘, 기름 부음, 그리고 피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인간의 의무(순종)와 하나님의 은혜(성별)가 결합하여 거룩한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사역에 부름 받는 만인 제사장직을 예표합니다.

(2)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우리의 위임

- 구약의 제사장은 흠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씻음(세례), 기름 부음(성령 강림), 그리고 영원한 피(십자가 희생)를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히브리서 7:23-28).
-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위임식은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별된 도구였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히 7: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라

[히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 7: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 9:7]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애나

2. 첫 번째 제사: 백성을 위한 중보의 시작

가. 아론의 첫 직무 수행과 하나님의 임재

(1) 속죄와 번제의 순서와 축복

-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후 첫 번째로 수행한 일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 즉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레위기 9:7). 이는 제사장의 모든 사역이 백성의 죄 사함(속죄)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번제)에 기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복의 선 포였습니다.

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하라

(2) 여호와의 불이 임하다

-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모두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매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24).
- 이 불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무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사의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이행되었음과, 아론의 직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나. 첫 제사 속의 영적 적용

(1) 직분자의 필수 요소: 순종과 겸손

- 아론과 모세의 첫 제사는 모든 규례를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

러운 임재가 나타났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린 것은 (레위기 9:24),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은 마땅히 겸손과 경외심으로 반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에 취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2) 영적 결론

- 레위기 8-9장은 직분을 맡은 자의 거룩함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깨끗해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직무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우리가 맡은 모든 영적 직무에 우리의 죄나 교만이 섞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 장

/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제 6 장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도입내용

(레위기 10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끔찍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에 내려주신 거룩한 불 외에 인간의 임의대로 드린 예배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을 요구하시며, 예배의 방식에서조차 인간적인 생각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만이 기준이 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입니다.

1. 다른 불을 드린 죄와 그 심판

가.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죽음

- (1) '다른 불'의 의미와 죄의 심각성 (레위기 10:1)
-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드렸더니”
- '다른 불'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인간적인 열심이나 방법으로 만든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세상에서 가져왔거나, 성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인위적인 불이었을 것입니다.

- 이들의 죄는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인간의 방식이 섞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2) 불순종의 즉각적인 심판

-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린 즉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2). 그 심판은 지체 없이 임했습니다. 이 심판은 제사장이 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 이 심판은 이제 막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가르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은혜이지만, 그 교제는 반드시 거룩함의 규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 심판에 대한 아론의 반응과 영적 교훈

(1) 아론의 침묵과 모세의 위로

- 두 아들의 즉각적인 죽음 앞에서 아론은 “잠잠 하였더라” (레위기 10:3). 이는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외심 깊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 모세는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레 10: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2) 영적 결론: 참된 경외심과 분별력

-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예배와 사역에서 인간의 편리나 감정, 경험을 앞세우는 모든 행위가 ‘다른 불’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규례)을 기준으로 삼아 드려져야 합니다.

- 제사장들은 슬픔 중에도 술을 마시지 말며(레위기 10:9),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레위기 10:10). 이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정신적인 맑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생명만큼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술이나 다른 것에 취해 분별력을 잃는 것은 사역자에게 치명적입니다.
-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성을 깨닫고, 우리의 예배와 봉사 속에 인간적인 열심이나 교만한 방법(다른 불)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순종해야 합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2. 남은 제사장들을 위한 추가 규례

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명령

- (1) 포도주와 독주 금지 (레위기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 나답과 아비후의 죄의 배경에 술 취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하나님은 남은 제사장들(엘

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회막 봉사 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는 규례를 내리셨습니다.

- 이는 제사장이 항상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결코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2)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 의무

- (레위기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이 분별에 실패하면 백성 전체가 혼란과 죄에 빠지므로,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정신적, 영적 명료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나. 제사장의 남은 분깃에 대한 처리

(1) 속죄제 제물의 고기 처리 문제

-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규례대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할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레위기 10:16-17).

[레 10: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가로되

[레 10: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 모세는 이에 대해 화를 냈지만, 아론은 가문의 슬픔과 심판의 엄중함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고기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슬픔과 부정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먹는 것은 오히려 불경한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2) 영적 결론: 제사 직분의 영원한 존속

-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 제도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함을 확 인시키셨습니다.
-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슬픔을 절제하 고, 남은 제사 규례 (소제, 화목제)에 따라 제물의 분깃을 먹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명령했습니 다 (레위기 10:12-15).
- 이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완성될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심을 보여주 는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레 10:12] 모세가 아론 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 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 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 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 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 서 먹되

[레 10:13] 이는 여호와 의 화제 중 네 음식과 네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 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 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10:14] 혼든 가슴과 든 뿔다리 는 너와 네 자 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 희생 중에서 네 음식 과 네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레 10:15] 그 든 뿔다리 와 혼든 가슴으로 화제 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 가 여호와 앞에 흔들 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와 의 명령대로 너 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7 장

/

먹는 것의 영적 분별력

제 7 장 먹는 것의 영적 분별력

도입내용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될 짐승(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음식 규례를 다룹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위생적인 목적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영적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식탁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요구됨을 깨달았습니다.

1.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

가. 땅의 짐승과 물고기 규례의 확장된 이해

- (1) 땅의 짐승: 굽과 되새김질의 기준과 영적 교훈
(레위기 11: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 땅 위의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을 정한 것으로 허용했

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며,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된 삶을 상징하고, 되새김질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상징하는 영적 교훈으로 해석됩니다. 걷는 방식과 소화 방식 모두에서 특별해야 했듯이, 성도는 삶의 방식과 내면의 양식이 모두 주님께 합당해야 합니다.

(2)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의 기준과 영적 교훈

- 물속의 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9). 이 조건이 없는 장어, 조개, 오징어 등은 모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주로 진흙이나 바닥에 붙어 살거나 죽은 것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느러미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영적 진보와 능동적인 삶을, 비늘은 세상의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말씀의 갑옷과 방패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레 11: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나. 부정한 짐승과의 접촉과 정결의 원리

(1) 부정한 것에 접촉된 기구의 처리와 죄의 전파

- 부정한 짐승의 주검(시체)에 접촉된 사람은 그 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기구들도 그 부정함이 전파되었습니다. 질그릇은 부정을 흡수하므로 깨뜨려야 했고, 나무 그릇이나 의복 등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1:32-33).
- 이 규례는 죄와 부정함은 접촉만으로도 전파되며, 그 영향력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 (도구, 환경)에까지 미친다는 영적 경고를 줍니다.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죄가 스며든 도구는 재사용할 수 없거나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레 11:32]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 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레 11:33]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2) 영적 결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과 분별

- 음식 규례의 핵심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44)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는 행위(가장 일상적인 일)를 통해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끊임없이 기

억해야 했습니다.

- 이 규례는 우리에게 거룩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과 분별력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죄악된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을 멀리하고 말씀(되새김질)과 기도로 자신을 보호하며(비늘)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2. 부정한 새와 곤충, 파충류 규례

가. 부정한 새와 날개 달린 곤충

(1) 부정한 새의 종류와 특징

-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에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 20종류의 부정한 새들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새들은 주로 육식성이거나 시체를 먹는 것(청소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 이 새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살아가거나, 죽음과 부패와 가까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습성을 경계하라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레 11:13] 새 중에 너희가 가장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장 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레 11:14] 매와 매 종류와
[레 11:15] 까마귀 종류와
[레 11:16]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레 11:17]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레 11:18]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레 11: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2) 날개 달린 곤충의 원칙과 예외

- 날개 달린 곤충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는 부정했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 즉 메뚜기, 베짚이,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21-22).
- 날개와 더불어 다리까지 사용하여 땅의 습성(기어다님)을 뛰어넘는 곤충만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뛰어오름)을 갖춘 존재를 인정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 11: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레 11: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짚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팻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나. 땅에 기는 것(파충류, 작은 동물)에 대한 최종 경고

(1)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의 부정함

-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즉 파충류와 설치류, 양서류 등은 예외 없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1:29-30). 이들은 땅바닥과 가장 가깝고, 뱀을 비롯하여 죄의 유혹과 연관된 상징성이 강했습니다.
- 이들은 낮은 자세로 기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 붙어 사는 세속적이고 천한 습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러한 낮고

[레 11:29]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쟁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레 11:30]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더러운 습성을 본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2) 영적 결론: 하나님을 닮는 구별된 삶

-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결국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정한 동물들은 분별력 (굽 갈라짐)과 묵상 (되새김질)을 갖추었으며, 부정한 동물들은 탐욕적 (육식성 새), 부패 (시체 먹음), 세속적 (바닥에 기어다님)인 습성을 가졌습니다.
-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행위는 곧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분별력과 구별된 삶을 유지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배웁니다.

3. 음식 규례의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완성

가. 음식 규례의 폐지와 영적 변화

(1) 외적인 규례에서 내적인 거룩으로의 전환

- 구약의 음식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11-15).

- 이는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으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룩의 초점이 외적인 음식에서 내적인 마음과 사람으로 옮겨졌음을 선언합니다.

(2)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 예수님께서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음식 규례를 완성하셨으며, 이제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양심과 믿음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정함은 음식이나 외부 접촉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생각과 행위임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행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는데

[행 10:13] 또 소리가 있오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행 10:14]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대

[행 10:15] 또 두번째 소리 있오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나. 신약 성도의 분별과 거룩한 삶

(1) 영적인 되새김질과 분리된 삶의 지속

- 음식 규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신

약 성도에게는 여전히 '되새김질' (말씀 묵상)과 '굽 갈라짐' (세상과의 분리)의 정신이 요구됩니다.

-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닌,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부정함을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2) 영적 결론: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책임

-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부여합니다.
- 우리는 정결함을 위해 더 이상 제사나 복잡한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8 장

/

정결해지는 규례

제 8 장 정결해지는 규례

도입내용

(레위기 12-15장)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출산, 피부병(나병), 그리고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을 다루는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출산, 질병)까지도 부정함으로 간주하며,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절차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부정을 깨끗케 하실 수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출산 규례와 나병 규례: 죄와 부정의 상징

가.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정함과 속죄의 필요성

(1) 부정함의 기간과 정결 예식 (레위기 12:2)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성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완전히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딸을 낳았을 때 부정 기간이 두 배로 길었는데, 이 규례의 정확한 이유는 해석이 다양하지만, 죄의 영향력이 여성에게 더 크다는 신학적 관점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 이 부정함은 출산 자체가 죄악이어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과 고통이 들어온 세상에서, 생명의 탄생마저도 근원적인 부정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출산 후에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2:6-7). 이는 생명 탄생의 기쁨 속에서도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고,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레 12:6]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 12: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2) 나병(피부병): 죄의 결과와 확산의 상징

- 나병(악성 피부병)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죄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나병은 서서히 확산되고, 격리되어야 하며, 제사장이 진단하고 정결을 선언해야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나병은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 홀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45-46). 이는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죄인은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단순히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레 13:45]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
치기를 부정하다 부정
하다 할 것이요
[레 13:46] 병 있는 날 동
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되진 밖에 살지니라

나. 유출병 규례와 죄의 보편성

(1) 유출병과 부정을 전파하는 속성

- 유출병(성기나 몸에서 비정상적인 체액이 나 오는 경우)을 앓는 남녀는 부정하게 여겨졌으며,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침상, 의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레위기 15:4-7).
- 유출은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가 우리 몸의 생명력을 소모시키고 힘을 약하게 만든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레 15:4]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레 15:5]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6]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7]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 영적 결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결

- 레위기 12-15장의 모든 부정 규례들은 인간의 힘으로 부정을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증명합니

다.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유출 병자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듯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 이 모든 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유출병)에게 만져지셨음에도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부정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뛰어넘는 영원한 정결함을 얻습니다.

2. 나병의 정결 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 나병 환자의 복귀 절차

(1) 제사장의 진단과 두 마리 새의 예식

-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그는 즉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이 예식에는 두 마리의 새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한 마

리는 산 채로 놓아 광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레위기 14:4-7). 피 흘림은 죄의 대가(속죄)를, 산 새가 날아감은 죄의 제거와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2) 피와 기름의 바름

-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제사장 위임식 때와 같이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레위기 14:14, 17).
- 이는 그가 이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귀),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손), 거룩한 길을 걷는(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피는 정결을, 기름은 성령의 회복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나. 곰팡이(악성 흄) 규례의 영적 의미

(1) 의복과 가옥의 악성 흄

- 나병과 유사하게 의복이나 집 벽에 생기는 곰팡이(악성 흄)도 부정하게 간주되어 정결 의식을 거치거나, 심지어 의복을 태우거나 집을 헐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47-52, 14:34-45).

[레 14: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 14: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레 14:6]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레 14: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 13:47]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 이는 죄와 부정함이 단순히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환경과 물질에까지 스며들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영적 결론: 환경 정결의 책임

- 고평이 규례는 성도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 소유하는 물건에서도 죄의 영향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 정결 규례의 신학적 통찰과 삶의 실천

가. 죄와 부정함에 대한 구속사적 통찰

(1)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무능력

- 레위기 12-15장의 규례들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출산, 질병, 자연적인 유출까지도 부정함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레 13:48] 베나 털의 날
 에나 씨에나 혹 가족에
 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있되
 [레 13:49] 그 의복에나
 가족에나 그 날에나 씨
 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
 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
 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
 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게 보일 것이요
 [레 13:50]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
 가
 [레 13:51] 칠 일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
 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족에나 가족
 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
 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
 라 그것이 부정하니
 [레 13:52]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
 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
 둥병인즉 그것을 불사
 를지니라

신학적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이 규례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라는 신약의 선언을 구약적 예식으로 증명합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필연성

-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마태복음 8:3), 혈루병 여인의 부정을 정결케 하신 (마태복음 9:20-22)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이 처리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부정함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모든 정결 예식은 영원한 정결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마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9:20]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가를 만지니

[마 9: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나. 신약 성도의 삶의 실천

(1) 세상과의 분리와 자기 성결

- 우리는 더 이상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 격리되지 않지만, 죄의 유혹과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분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나병과 같아서,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 말씀(귀), 사역(손), 행실(발)에 피와 기름을

바른 정결 의식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지체와 삶의 행보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 영적 결론

- 레위기 12-15장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정결 과정이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감사하게 합니다.
-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도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피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죄와 부정이 스며들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9 장

/

대속죄일 규례

제 9 장 대속죄일 규례

도입내용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연간 절기 중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욥 키푸르, Yom Kippur)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 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와 성소의 부정함까지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엄숙한 예식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의 핵심 그림입니다.

1. 대속죄일의 예식과 염소 두 마리의 상징

가. 대제사장의 정결과 지성소 진입

- (1) 대제사장의 철저한 준비와 거룩한 옷 (레위기 16: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

[레 16: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으며, 화려한 금옷 대신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은 순수함과 겸손을 상징하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에, 만일 규례를 어기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흠 없고 철저히 구별된 거룩함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2) 분향과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예식

-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은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언약궤 뚜껑)를 덮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피를 뿌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죄를 속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장소가 됩니다.

나. 염소 두 마리의 역할과 영원한 속죄

(1)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의 역할

-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잡혀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습니다.
-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시킨 후, 염소를 광야의 무인 지경으로 보냈습니다 (레위기 16:21-22).

(2) 죄의 처리와 영원한 속죄

- 피 흘린 염소는 죄를 용서하는 대가(죽음)를 상징하고, 아사셀 염소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멀리 보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 두 염소는 죄의 처리와 제거라는 속죄의 완전한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 영적 결론: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 염소의 역할을 하였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세상 끝까지 가져가 영원히 제거하시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제거됩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 16: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시편 103:12).

2.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와 성도의 삶

가. 대속죄일 금식의 의미와 경외심

(1)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의 본질

-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3:27).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을 넘어,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회개를 상징했습니다.
- 백성들은 일 년간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며 겸손과 애통함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태도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실 때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레 23: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 안식과 금식의 조화

- 대속죄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 금식과 안식의 조화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속죄를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통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속죄를 위해 노

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 신약적 완성: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1) 대제사장의 영원한 중보

-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11-12). 구약의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하여 피를 뿌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 이로 인해 지성소로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고,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19-20).

(2) 영적 결론

-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식이나 염소의 희생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누립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죄에 대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의지하며, 거룩함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에게 있습니다.





10 장

/

거룩한 백성의 윤리

제 10 장 거룩한 백성의 윤리

도입내용

(레위기 17-20장) 레위기 17장부터 20장은 흔히 '성결법전'이라 불리며, 제사 의식(1-16장)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과 사회 윤리 속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2)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예배뿐 아니라 이웃 사랑, 공정, 정직, 성적인 순결 등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함이 종교적 의무를 넘어 삶의 실천임을 보여 줍니다.

1.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법

가. 이웃 사랑의 실천 강령

(1)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대하는 자세와 공의

-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를 주워가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9:9-10). 이는

[레 19: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 19: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동체 안의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는 등 재산과 노동에 대한 공정성을 엄격히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9:11-13). 이는 사회 정의가 거룩한 나라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2) 보복 금지와 이웃 사랑의 완성

- 레위기는 단순히 이웃을 해치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너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이 규례들의 절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18)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인용하셨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레 19:11]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거룩한 삶의 기준 심화: 성적인 거룩함과 우상 숭배 금지

(1) 성적인 거룩함과 가정의 순결

- 하나님은 가족 간이나 근친 간의 성관계 및 짐승과의 관계 등 모든 부도덕한 성행위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이러한 행위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 성적인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성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 19:26] 너희는 무엇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레 19:27]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9:4]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 우상 숭배와 미신 금지의 원리

- 이스라엘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가나안의 잔인한 우상 숭배를 금지받았습니다. 또한 무당이나 박수를 찾는 행위,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상하게 머리털을 깎는 미신적인 행위들도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9:26-31).
-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4).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것은 곧 거룩함을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성결법전의 영적 결론과 삶의 적용

가. 거룩과 사랑의 관계

(1) 거룩함의 근원: 하나님의 속성

- 레위기의 모든 윤리 규례의 근거는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선언이 각 규례 뒤에 반복됩니다.
- 이는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완성

- 성결법전의 모든 요구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이라는 최종적인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마태복음 5:17). 즉,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나. 신약 성도의 윤리적 삶의 실천

(1) 구별된 정체성 유지

- 성결법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별된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바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특히 돈과 성적인 문제에 있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거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2) 영적 결론

- 레위기 17-20장은 제단에서 피 흘려 속죄받은 백성을 이제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윤리를 실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며,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소명입니다.





11 장

/

일곱가지 여호와와의 절기

도입내용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정하신 일곱 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사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식하며,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1. 봄 절기: 구원과 그리스도의 초림

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의미

- (1) 유월절: 구원과 해방 (레위기 23: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 유월절은 애굽에서 재앙이 넘어간(유월) 사건을 기념하며, 구원과 해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레 23: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
절이요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의 심판
이 넘어간 사건을 완벽하게 성취합니다.

(2) 무교절: 죄를 제거하는 삶 (레위기 23:6)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 일 동안 너희
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무교병)을 먹
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므
로, 무교절은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 23:6] 이 달 십오일
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니 칠일 동안 너희는 무
교병을 먹을 것이요

(3)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 초실절은 곡식의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드
리는 절기로,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20)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셨음을 예표합니
다.

[고전 15:20] 그러나 이
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가 되셨도다

나. 칠칠절(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1) 칠칠절과 성령의 기름 부음

-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칠 주(49일)가 지난 오
십 일째 되는 날 지켜졌습니다. 이는 노동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역사를 기념합니다. 이는 구속 역사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적 사역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2. 가을 절가: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

가. 나팔절, 속죄일의 구속사적 의미

(1) 나팔절: 회개와 준비의 나팔 소리

-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나팔(쇼파르)을 불어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휴거)을 예표합니다.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깨어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2) 속죄일: 완전한 속죄와 회복

- 대속죄일(욥 키푸르)은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로, 온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앞의 9장 참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죄 사함을 확증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영적 회복을 예언합니다.

나.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

(1) 초막절: 안식과 영원한 천국 소망

- (레위기 23:42-43) “너희는 이레 동안을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며 초막(임시 거처)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심 아래 있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 영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재림 후의 천국 잔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레 23:42]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레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 장

/

율법과 규례의 결론

도입내용

(레위기 26-27장) 레위기의 마지막 두 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과 규례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26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올 극명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선언하며, 이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7장은 개인적인 서원과 십일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며,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구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의 실천과 완성을 요구합니다.

1.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결과

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 (1) 땅의 축복과 평안의 약속 (레위기 26:3-6)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

[레 23:3]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레 23:4]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을 것이며...”

-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할 경우, 철따라 비를 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며, 적들을 물리치고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전과 번영이었습니다.
-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외부의 위협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레 23: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레 23:6]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와 무교절이니 칠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12)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레 26: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저주)

(1) 불순종의 단계적 징계와 고통

- 하나님은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경우 일곱 배나 더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징계는 질병(폐병, 열병), 기근,

전쟁, 맹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로와 유배에 이르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레위기 26:14-33).

-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을 회개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징계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습니다.

(2) 사랑의 징계에 담긴 회복의 약속

- 놀랍게도 징계의 예언 끝에는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굽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게 유지된다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레 26:42] 내가 아굽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2. 서원과 십일조 규례: 삶의 구별

가. 서원의 규례와 그 의미

(1) 사람과 재물을 서원하는 규정

-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시 무를 때 지 불해야 하는 규정들을 다룹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 그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해진 값(가치)을 지불하여 다시 무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7:3-8).
- 이 규례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공정한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서원의 엄중함과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2) 십일조 규례의 성물성

- 십일조는 땅의 곡식이나 열매, 그리고 가축의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의 것, 곧 성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레위기 27:30-32).
-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 27:30)
- 십일조는 인간의 소유 중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부분이며, 이는 나머지 모든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고

[레 27:3]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레 27: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레 27:5]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레 27:6]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은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은 은 삼 세겔로 하며

[레 27:7]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 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레 27: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1]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백이었습니다. 서원과 십일조는 레위기 전체가 요구하는 거룩한 구별을 물질적 영역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레 27: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와 거룩한 것이 되리니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4]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나. 영적 결론: 그리스도 안의 순종과 완성

(1)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축복의 성취

-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 규례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그분을 통해 언약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종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입니다.

(2) 삶의 구별과 헌신의 실천

- 레위기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34)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이는 이 모든 명령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임을 선포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정직한 서원 이행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서원과 십일조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영맥풀이

초판 발행 2015. 11. 17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